

2019년 상반기 일본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현황
-수입금지 건수가 13년 연속 1만 건 초과-

관세법인 신대륙 관세사 이호능

일본 재무성은 2019년 9월 6일 전국세관의 2019년 상반기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금지 건수는 12,84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하였으나, 13년 연속 1만 건을 초과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입금지 수량은 577,534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감소하였다.

세관에서 1일 평균 70건, 3,100점 이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증감(%)
건수(건)	26,034	30,627	26,005	13,856	12,844	△7.3
수량(점)	622,665	506,750	929,675	676,765	577,534	△14.7

2. 국가별 단속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10,75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건수의 83.7%를 차지하여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747건(전년동기대비 23.9% 증가, 구성비 5.8%), 필리핀이 407건(전년동기대비 48.5% 증가, 구성비 3.2%), 한국이 296건(전년동기대비 68.2% 증가, 구성비 2.3%)으로서 3개국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210,089점으로 전년 대비 63.9%나 감소하였으며, 전체 금지 수량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대만이 186,606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090.6%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체 금지 수량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이 117,341점으로 전년동기대비 997.6%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체 금지 수량의 20.3%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이 45,146점(전년동기대비 29.3% 감소, 구성비 7.8%)이다.

(표2) 주요 국가별·연도별 수입금지 건수 추이(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증감(%)
중국	23,916	28,250	22,578	12,311	10,752	△12.7
홍콩	717	828	1,150	603	747	23.9
필리핀	270	430	715	274	407	48.5
한국	427	322	525	176	296	68.2

(표3) 주요 국가별·연도별 수입금지 수량 추이(점)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증감(%)
중국	373,735	414,946	773,460	581,338	210,089	△63.9
대만	4,544	2,031	2,169	1,315	186,606	14,090.6
한국	53,505	9,367	17,449	10,691	117,341	997.6
홍콩	159,575	55,023	100,430	63,838	45,146	△29.3

3. 지적 재산권 종류별 단속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12,492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건수의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위조 캐릭터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212건(전년동기대비 0.9% 감소, 구성비 1.6%)이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511,753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수량의 8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아이폰 등 의장권 침해 물품이 47,246점(전년동기대비 25.2% 감소, 구성비 8.2%)이다.

(표4) 지적 재산권 종류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상반기	97.2	1.5	1.3	0.0	0.0
2019년 상반기	96.8	1.6	1.2	0.3	0.0

(표5) 지적 재산권 종류별 수입금지 수량 구성비 추이(%)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상반기	83.5	9.3	4.1	3.1	0.0
2019년 상반기	88.6	8.2	2.5	0.7	0.0

4. 품목별 단속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5,644건(전년동기대비 9.5% 증가, 구성비 40.5%)으로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류가 3,216건(전년동기대비 4.5% 증가, 구성비 23.1%), 구두류가 979건(전년동기대비 43.6% 감소, 구성비 7.0%), 휴대폰케이스 등 휴대전화 및 부속품이 958건(전년동기대비 31.2% 감소, 구성비 6.9%)으로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CD·DVD 류가 292,737점(구성비 50.7%)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62,855.8%나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42,770점(전년동기대비 0.4% 증가, 구성비 7.4%), 연초 및 깍연용구가 25,845점(전년동기대비 77.0% 증가, 구성비 4.5%), 의류가 24,180점(전년동기대비 18.6% 증가, 구성비 4.2%)이다. 특히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 연초 및 깍연용구, 미용품 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표6) 품목별 수입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가방류	의류	구두류	휴대전화 및 부속품	시계류	기타
2018년 상반기	34.3	20.5	11.5	9.3	5.8	18.6
2019년 상반기	40.5	23.1	7.0	6.9	4.1	18.4

(표7) 품목별 수입금지 수량 구성비 추이(%)

	의약품	CD·DVD	컴퓨터	가방류	전기제품	연초류	의류	기타
2018년 상반기	45.9		4.9	7.4	6.3	2.2	3.0	30.3
2019년 상반기	1.2	50.7	4.0	2.9	7.4	4.5	4.2	25.1

5. 수입형태별 단속실적

수입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11,384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였으나, 전체 금지 건수의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화물이 1,460건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7.2% 감소하였고, 11.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이 88,179점으로 전년동기대비 79.1%나 대폭 감소한 반면에(구성비 15.3%), 일반화물이 489,355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92.4%나 대폭 증가하였다.(구성비 84.7%)이다.

일본세관에서 수입 금지된 침해 물품 사례

DVD드라이브 (상표권)



모자 (상표권)



티셔츠 (저작권)



化粧品 (상표권)



의약품 (상표권)



기념메달 (상표권)



스마트폰 등그립스탠드(특허권)



Bag (상표권)



반지 (상표권)



컨트롤 커버 (의장권)



自動車用호일 너트 (상표권)



電子담배용 카트리지(의장권)

